

북미 원주민을 주님 품으로

북미원주민 선교사 이진호,신해숙 기도편지

3746 Grieve Rd. Port Alberni
BC V9Y 7W7 CANADA

2016년 04월 01일
2016-01호
통권 25호

(Tel)070-8264-8742 [H] 1-250-913-0937 (E-Mail)gnm.mike@gmail.com

'북미원주민을 주님 품으로'는 북미원주민과 나아가 세계 모든 원주민을 향한 선교비전을 후원자들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마음은 봄으로 화사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포트알버니 이진호, 신해숙(유빈,다희,찬영)선교사 가족이 안부를 전합니다. 채 2016년이 입에도 익숙하기 전에 벌써 년 중 4분에 1을 흘러보내며 아쉽지만 남은 날들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2016년 사역 보고

1. 난항



지난 해 부터 포트 알버니에 예배처소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 교회와 개인 동역자들의 바램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동분서주 하며 장소를 찾기와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몇 군데 마음에 두었지만 조건이 맞으면 주인이 예배처소로 자리를 내 줄 수 없다거나, 주인이 둘인데 한 사람을 좋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시청에서 예배 처소를 위한 허가 신청을 내면 그 곳은 예배,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없다든지 여러 이유와 문제로 진행이 쉽지 않아 맘고생이 많았습니다. 진행 상황이 더디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지라 조급한 마음에 이러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덮어 놓고 시작하고 싶은 생각으로 애써 마음에 없는 장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마다 아내의 만류가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음에 낙점을 한 장소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2차선 길을 마주하고 있는 두 곳이 적합한 장소로 나왔습니다. 한 곳은 저희가 원하는 부엌과 바닥등이 완비된 곳이었습니. 하지만 길 하나를 차이로 원주민들의 동선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장소는 우리가 부엌을 셋팅해야 하고 바닥도 좀 손보야 하는 곳이었습니. 그런데 원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설이 보충이 필요하더라도 원주민들의 접근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하려고 리얼터(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때마침 저희가 원하지 않는 장소는 이미 임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건너편 장소를 마지막으로 보고 결정하겠노라고 이야기 하고 보기로 한 날 연락이 왔는데 1년 6개월 정도 비어 있던 장소가 바로 전에 계약이 되었다는 군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마음에 자책이 밀려오고 또 다시 지금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맘에 낙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 지고 더 늦기 전에 다른 곳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차를 몰아 'For Rent' 사인을 찾아 나섰죠.

2. 사인(Sign)? 계약(Sign)?

한참을 찾다가 좋은 자리가 있어 쇼 윈도우를 통해 장소를 미리 엿보고 좋은 곳이다 싶어 리얼터에게 연락을 하는데 계속 통화가 안되어 서성이며 통화를 시도하다가 우연히 건너편 장소를 보니 'Good Point'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눈에 들어 왔습니. 상가입구에 큼지막하게 써서 붙인 안내문과 달리 벽 쪽 쇼윈도 안쪽으로 'For Rent' 사인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 대개 이런 경우는 주인이 직접 렌트를

하는 곳이죠. 쇼윈도는 있지만 가 쇼윈도 전체를 블라인드가 가리고 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었지만 보고 싶은 생각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통화가 되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붙은 안내문에 글을 읽어 보니 그곳도 우연치 않게 예배 장소더군요. 주일 학교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소임들에 대한 안내가 손글씨로 예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과 상상을 하게 하는 문구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도 돌아보았지만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약속시간에 다시 찾은 곳에서 여주인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들어선 곳에는 양쪽으로 의자들이 나열되어 있고 드럼과 앰프 등이 예배가



드러 지는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죠. 장소를 둘러보며 물으니 본인 생각에 천주교 형태의 미사 모임이 매주 행해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주일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하며 장소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인들과는 언제든지 리스나 월단위 렌트가 되면 자신들은 그냥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장소는 마음에 들었지만 부엌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했죠. 주인에게 우리는 부엌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윗 층을 보여 주겠노라 하더군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비만이신 분들도 많고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들도 계신지라 맘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여 주겠다니 윗 층에 올라가 보았지요. 이층에 올라가 보니 부엌도 너무 좋고 예배당으로는 제격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식 학교 강당이나 이곳에 gym과 같은 곳이었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내일이라도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부엌 시설도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크기와 시설이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인 것은 이층이라는 것이 너무 맘에 걸려서 내심 맘에 불편하던 차에 집주인이 뒷문을 보여 주겠노라며 열어 준 문은 바로 주차장으로 통하는 곳으로 1층이었습니다. 건물이 언덕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 앞쪽에 이층이 뒤쪽은 1층인 구조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환경이 완전히 내가 찾던 장소 이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층에서 올라와서 그렇지 일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바로 주차장과 인도로 통하는 길에서 들어 왔다면 2층이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죠. 너무 적합한 자리지만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틀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주인과 헤어진 이후에 내내 그 장소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주인을 만나 다시 한 번 장소를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은 너무 좋으신 분 같고 오히려 우리를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일 년 리스를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우면 리스기간 중이라도 이야기 하면 계약을 취소해 주겠노라 우리가 청하지도 않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법률 자문 후에 싸인 하자며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보고 점검하라며 열쇠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아직 사인을 앞두고 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방정이 앞서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예배처소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기를 위하여, 혹 보이지 않는 문제에 맞닥드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실 간청합니다.

특별기도제목

1. 새로운 예배 처소가 주님 안에서 잘 안정되도록
2. 본격적으로 다운타운 선교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3. 7월 여름성경학교(VBS)사역을 위한 원주민들과의 만남이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4. 예배 처소에 필요한 비품들과 설치물들의 잘 채워지도록
5.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문제도 주의 은혜로 덮으시기를
6. YFMS 비영리단체등록(Charity)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 지기를